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 '첫걸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에 첫걸음을 뒀다.

초등학교에는 태블릿PC가, 중·고등학교에는 노트북이 각각 지급된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 교원·시민단체, 전북도의회와 공청회를 갖는 등 스마트기기 보급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6만5,000여 대의 스

도교육청,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물품선정위 열어 초등생에 웨일북, 중·고교생에 노트북 보급 결정 "타 시도교육청과 긴밀 협력, 축적 노하우 공유할 것"

스마트기기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입학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먼저, 초등학교생에게는 기능의 단순성, 쉬운 화면 구성과 신체 발달에 적합한 기기 크기 등을 고려해 태블릿 PC 형태의 네이버 웨일북을 보급한다. 네이버 웨일북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 한국어 자원에 특화된 음

성인식 인공지능 기술의 탑재, 화면 필기 및 기록 기능을 활용한 수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생에게는 텍스트 코딩, 프리젠테이션, 고사양 그래픽 작업 등에 적합한 노트북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다양한 플랫폼 및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추가 계약 없이 한글 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있

는 점, 데이터 보관에 유리한 대용량 저장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특히 노트북에 최적화 된 MDM(Mobile device management, 모바일 기기 관리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함께 보급해 노트북 선정에 따른 보안성 문제도 해소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스마트기기 학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생은 태블릿PC 선호도가 60.7%, 중·고등학생은 노트북 선호도가 8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종은 초·중·고 학교급별로 동일하게 보급된다. 이는 학년·학급 간 이동성에도 익숙한 기기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스마트기기 보급과 교육용 플랫폼 구축은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했지만 타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축적된 시스템과 노하우를 공유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공동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전북의 미래교육은 큰 걸음으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추진중인 사업으로, 부산과 경남은 이미 100% 지급을 완료했다. 하지만 전북은 21.4%로,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위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이현아, 아태 농아인 유도선수권 '금'

우석대학교 이현아(스포츠지도학과 1년) 학생이 지난 2~8일까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 농아인 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에는 10개국에서 15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이에 따르면 여자부 개인전 63kg급에 출전한 이현아 학생은 결승에서 키르기스스탄 다니야로바 아이투르칸(DANIAROVA Aiturgan) 선수를 상대로 한판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7살 때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이현아 학생은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엘리트 스포츠 유망주로 인정받았다.

전북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정재훈 유도부 감독의 권유로 유도를 시작한 이현아 학생은 비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유도계 스타로 성장하고 있다.

이현아 학생은 "전라북도 장애인 유도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활과 함께 운동도 열심히 하겠다"면서 "우리나라 체육을 대표하는 수어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상민 스포츠지도학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한 이현아 학생이 매우 대단스럽다"며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매진하면 전 세계 장애인 유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지난해 장애인 유도 국가 대표로 선발된 이현아 학생은 제42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1위, 2022년 추계 초중고유도연맹전 1위, 2021년 브라질 카시아스두데데올림피 단체전 2위 등 국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며 장애인 유도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9일 비전관 대강당에서 제1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승고한 정신, 이어받겠습니다"

전주비전대학교(총장장 직무대행 우병훈)는 9일 비전관 대강당에서 제1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 3학년 135명의 학생들이 나이팅게일의 승고한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예비간호사로서 간호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서약의식이다.

이 자리에는 전주괴뢰병원, 대한간호협회 전북지부, 효사랑가족병원 등 협력 기관대표가 참석해 예비간호사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김재현 간호학부장은 격려사에서 "나이팅게일의 승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인성하고 테이커(Taker) 보다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버(Giver)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간호사가 돼 창의적·윤리적·글로벌 간호인으로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병훈 총장직무대행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진행하게 돼 뜻깊다"며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실무에 대한 자신감도 채워 지역사회와 학교를 빛내는 자랑스러운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RIS사업으로 대학교육 혁신 나선다

전북대, 미래수송기기·에너지신산업·농생명 바이오 분야 육성 대학교육 혁신본부 설치... 대학 교육혁신 프로그램·성과 관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사업)을 통한 대학교육 혁신에 나섰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 및 혁신기관 기업 등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도 등 5개 광역 및 지자체와 전북대학교 등 9개 지역대학, 전북도교육청 등 102개 지역혁신 기관 등 총 1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사업에 향후 5년 간 국비 1,500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645억원 등 총 2,14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미래수송기기(중심대학

전북대)와, 에너지신산업(중심대학 군산대), 농생명·바이오(중심대학 원광대) 분야다.

먼저, 전북대가 맡은 미래수송기기 분야에서는 관련 실무요소 기술을 결집한 창의융합인재 양성과 수송기기 부품 전장화, 네트워크화,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 그리고 전·후방 기업 수요 R&D 기반 미래수송기기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이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는 융합인재 양성과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선도가속 확보, 그리고 관련 신산업 육성에 나서고 농생명·바이오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팩토리 및 안전관리 실무인재 양성과 농생명 기반 차세대 바이

오 소재 및 푸드테크 스마트 기술 확보, 그리고 농생명·바이오 6차 산업 및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핵심분야 과제는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다.

특히 전북대는 지역 플랫폼 중심의 대학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본부'를 설치해 대학들의 교육혁신 프로그램 및 성과 관리하고, 핵심분야별 대학교육 혁신을 주도한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텍(ST) 공유대학(원)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융합실무인재, 고급연구인재, 현장전문인재, 사회창의인재 양성에 나선다. 또 핵심분야와 연계한 융합학과 및 융합대학원을 신설하고, 공동 실험실습 등이 가능한 새만금 공동캠퍼스 및 지역혁신기관의 협업 교육을 위한 새만금 오픈캠퍼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취체나 유연화기제, 마이크로디그리, 실험실습인증제, 기초·소영인증제 등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학사제도 운영과 새만금텍(ST) 공유대학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플랫폼 및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 기업 연계 현장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교육인프라 혁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 사업은 전라북도 등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의 기관들이 모두 하나가 돼 지역소멸을 막고 나아가 대학 혁신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전북대가 대학교육혁신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역 핵심분야에서 우수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인프라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사업)을 통한 대학교육 혁신에 나섰다. 사진은 전북대학교 전경.

재외공관 관저조리사 82명 배출

전주대 한식조리학과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학과장 도현욱)는 재외공관 관저조리사를 82명 배출했다고 밝혔다.

재외공관 관저조리사는 해외 160여 개 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관 및 대표부 등의 재외공관에서 활동하는 조리사로, 공관장의 외교 업무를 도와 세계 여러 나라의 귀빈을 접대하며 한식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한식 외교관 임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르면 이 화과 졸업생들이 지난 14년간 재외공관 관저조리사로 진출해 2023년 3월 현재, 40개국 50여 개 재외공관에 82명이 파견됐다.

특히, 2023년 2월 졸업한 학생 중 4명이 관저조리사로 활약하고 있다.

황지수 졸업생(2019학번)은 작년 9월부터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부임해 월드컵 기간 한식을 선보였다. 지난 2월 말에는 류후성 졸업생(2017학번)이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박한솔 졸업생(2019학번)이 주호랑청 대한민국 대사관에 각각 파견됐다. 또한 3월 중순에는 김해련 졸업생(2019학번)이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될 예정이다.

한편 한식조리학과는 정규교과 외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해외 진출 한식 조리사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의 전액 국고 지원으로 이뤄지며, 관저조리사에게 필요한 소양과 외국어 교육을 비롯해 권역별 식재료의 이해와 활용, 한식 디지털, 오찬과 만찬 메뉴 구성과 기획, 조리 실기, 테이블 코디네이션 등을 기초·심화·집중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된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파견돼 활동하고 있는 선배 관저조리사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관저조리사의 임무와 역할, 글로벌 식문화를 익히고 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기초학력 협력교사 역량 강화 연수 진행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이해 협력수업의 이해 등 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6일부터 4주에 걸쳐 전주 치명자산 세계평화의전당에서 '2023년 기초학력 협력교사 연수'를 진행한다

이는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번 연수는 단위 학교 및 시·군 교육지원청 협력지원센터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기본소양 과정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이해', '협력수업의 이해'를 시작으로 '난독과 경계선지능에 대한 이해', '문해력 및 수리력 이해' 등이다.

이를 통해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실현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 과정은 "기초학력 책임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3단계 안전망을 구축했다. 1단계

안전망으로는 교실 내 학습결손 조기 발견 및 해소를 위해 1수업 2교사제 지원을 위한 협력교(강)사 70명을 배치했다.

이와 2단계 학교 내 안전망은 학생의 학습 부진 원인을 다각적으로 진단해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운영한다.

마지막 3단계 학교 밖 안전망은 학생의 맞춤형 학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분청을 포함한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총 44명의 기초학력 협력교사도 배치했다. /정은성 기자

통합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를 지난해 379개교에서 올해 634개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어려운 부분을 세심히 살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복지사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규 교육복지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적응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10·13일 신규 교육복지사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신규 교육복지사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되는 이번 연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교육복지사의 역할, 학생 발굴과 지원방법, 대상학생 사례관리, 지역지원 연계방법 등을 진행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환경이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이 많은 학교

에 교육복지사와 예산을 지원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군지역 교육지원청 중에서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교육복지사 1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총 142명의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확보했다.

신규 교육복지사 연수 후에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복지사 연수 후에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맞춤형

원광대 이은희 교수 자원봉사진흥위원 위촉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이은희 교수가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제8기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자원봉사 활동기반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이은희 교수를 비롯해 20명의 위촉직 민간위원이 포함됐다.

전국의 자원봉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촉 위원들은 앞으로 2024년까지 2년 동안 자원봉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 추천으로 위촉된 이은희 교수는 "원광대가 도덕대학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